

설 추모 예배 순서

주후 2021. 2. 12(금) 아침

사 회 담 당 자

목	도	고	를 추모하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묵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	께						
찬	송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봉	독	고전 13장 12 -13절	가	족	중					
추	모	의	말	씀	지	금	과	그	때	사	회	자
찬	송		찬송가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다	함	께						
기	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	께						
추	모	사	고인에 대한 덕담과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	족	중						

*설 추모예배는 지구촌교회 공식 유튜브채널에서도 제공됩니다.

추모의 말씀(Message)

한국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추모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반드시 작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낸 우리 조상들은 그 고통을 <천붕지통, 天崩之痛>,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라고 했고, 자식들을 앞세울 때에는 <참척지변, 懺滅之變>, ‘참혹한 슬픔의 변’ 혹은 ‘땅이 무너지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별의 시간에 우리는 언제나 <왜>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가야 했는지, 왜 그런 모습으로 가셔야 했는지’라는 안타까운 물음입니다.

<지금>(nuini/now)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별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물음을 안고 오늘을 버티고 견디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옛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사랑하는 이들을 천국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추측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약속하는 우리가 믿는 저 멀리 천국의 영광조차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들의 치열했던 생존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거두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 시간 추모예배를 통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묻기도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그때>(tote/then)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나 그분 앞에 서는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에는 수수께끼(희미한_ainigma/riddle)과 같은 우리 모든 삶의 질문이 다 해답을 얻을 것이며, 사랑하는 이들을 부르신 주님의 섭리에 대하여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세 가지 하나님의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1. 하나님의 선물_믿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생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영이신 성령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로 허락하신 가족들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람과 비에 젖어 피어난 꽃처럼 믿음의 꽃을 피워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완성품이 아니라 자라는 것이기에 결국 그 나라에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서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선물_소망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이 된 순간부터 완성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그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living hope)이고, 복된 소망(blessed hope)이고, 확실한 소망(sure hope)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사는 동안 그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천국에 도착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릴까요? C.S 루이스 교수는 '천국은 우리의 거룩해진 자아가 끝없이 확장되는 곳이며,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할 일이 있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못다 이룬 우리의 자아의 꿈을 실현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의 전부이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끝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못다 이룬 우리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실현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기에 우리들에게 소망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선물_사랑

사랑이 없는 믿음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가정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상처는 서로를 믿지 못한 때문이었고, 믿지 못한 까닭은 결국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또한, 사랑이 없고 더 이상 사랑이 기다리지 못하는 곳에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롬 5: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이처럼 사랑이 소망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이 소망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제일인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완성된 상태로 들어가는 그 천국에선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며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 나라에 간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머지않는 그대에 거기서 다시 만나 서로를 용서하고 영원토록 사랑하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때 거기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랑으로 온전히 위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